

#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2개 선정

### 전북도, 국비 등 400억원 확보로 농기계·조선 산업 생태계 구축·수출 전략화 기대

전북도는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과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이 2018년도 산업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농기계 부품 및 선박 기자재의 기술개발과 품질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향후 수출 전략화까지 기대된다.

20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 공모사업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37개 사업을 신청해 산업부 검토, 민간평가위원회 컨설팅, 지역거점 심의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도와 군산시, 김제시는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차례 평가에 철저히 대비했다.

특히, 사업 선정 시 조선업 밀집지역인 군산시, 김제시는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차례 평가에 철저히 대비했다.

특히, 사업 선정 시 조선업 밀집지역인 군산시, 김제시는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차례 평가에 철저히 대비했다.

이뤄진 성과로 분석된다.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은 전북 지역의 2개 사업인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과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 지원 센터 구축사업' 등 총 2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고, 선정된 사업에는 2018년 국비배정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지원 생태계구축사업'은 전북의 농기계 산업의 설계에서 신뢰성 평가에 이르는 전주지역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부합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반영, 기획했다.

그간 전북도는 김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상호 협력해 김제시 지평선 산단에 '첨단 농기계종합지원센터', '뿌리기술지원센터' 등을 구축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3월 호남권 지역본부(광주) 관할 전북센터가 전북본부로 승격돼 도내 농기계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이 전국의 농기계 생산액의 29%,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농기계산업 생산거점지역으로서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등과 연계한 농기계산업의 메카 조성을 위

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김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해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5개의 기업 유치, 6,470명의 신규 고용, 지역 매출 7,500억원 증가 등 전북 농기계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사)전북새만금산업융합원이 함께 기획해 선정된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 구축사업'은 중소형 선박 분야로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자재 개발을 통해 도내 조선해양산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한 사업이다.

전북 조선관련 기업의 90% 이상이 군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분야 총 생산액 중 중소형 선박 및 기자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5.5%(2,684억원)로 수주가를 장기화로 오는 6월 군산조선소 도크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도내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에게 기존 대기업 의존도를 탈피하고 新 조선 산업의 육성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 중소형선박 및 기자재 중심 조선해양 선도를 비전으로 중소형 선박 및 기자재 선도 기술 선점과 신뢰성 향상 기술 확보를 위한 '중소형 선박 및 기자재 시험, 연구', '수요대응 기자재 신뢰성 향상', '기술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Module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데이터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 선점을 추진하는 것으로, 실선 시험과 유사한 환경의 모사시험을 통해 신뢰도 및 경쟁력을 높이고, 육상에 실선을 건축함으로써 선박 건조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One-Stop 상용화 지원체계 연구 개발→시험인증→사업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조기 사업화 및 기술 고도화의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사업 추진 시 40개의 기업 유치, 약2,000명의 신규 고용, 지역 매출 3,000억원 증가 및 부가가치를 2배 성장 등 전북 조선 산업의 성장에 예상 된다. /인재용 기자

# 전주 학교급식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시범 공급

### 11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으로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5월부터 전주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시범 공급한다.

11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전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전주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 전주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협력해 전주시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고, '깨끗한 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생산, 소비계획을 기존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해 권역 간 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전주시는 기존 급식식자재 업체의 유통망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전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시·군 센터 친환경농산물의 발주·공급을 맡는다.

그동안 삼척농정 친환경분과위원회

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판로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계약재배, 공동선별을 통해 친환경농업 조직화,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10개소를 육성했다.

특히 학교급식 등 소비처 요구에 대응(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4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동안 추진했던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 선순환' 원칙이 이번 시범 공급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급식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은 권역내 인근 지역과 공동생산계획을 마련한 후 전주에 공급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의 전주 공급 품목과 양이 중복되는 경우, 학생 수가 적어 생산, 판로 여건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배려한다. /인재용 기자

## 선관위, 19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5일까지 각 가정에 일제히 발송한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7일까지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 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 공약과 재산명세서,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각종 정보가 게재돼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우편함에 투입된 다른 세대의 선거우편물을 숨기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 홍보 및 전북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도봉구 소재 참동 하나로클럽에서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 '전북 농산물 특판전' 창동 하나로클럽서 26일까지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 홍보 및 전북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도봉구 소재 창동 하나

로클럽에서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순창의 참두릅을

필두로 완주 딸기, 임실 토마토, 남원 파프리카, 부안 감자 등 8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원에서 출하되는 12여개 품목을 판매하며 시식 및 할인행사를 통해 서울 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사전 예약 시작

6월 2일~4일 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의 사전 예약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참가자 전원 캠핑'을 원칙(외국인 참여 가능)으로 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총 200개의 캠프 사이트를 놓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예약 하지 않은 참가자는 당일 방문객으로 페스티벌 관람이 가능하다.

예약은 홈페이지([www.nomadfestival.co.kr](http://www.nomadfestival.co.kr))로 받으며, 페이스북(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과 블로그([blog.naver.com/nomadfestival](http://blog.naver.com/nomadfestival))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참가자들 간에 소통도 할 수 있다.

특히, 페스티벌 기간에는 무료 와이파이(WiFi)를 제공해 참가자들이 휴대폰·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으며, 주최 측과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한편, 페스티벌에는 '두 번째 달', '킹스턴 투디스카', '졸아서 하는 밴드', '노션택과 소울소스', 'DJ 오정달' 등의 실력과 뮤지션들이 웰컴 이 디에 파티와 월드 뮤직에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희열을 선사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새만금청, 유럽 해상풍력 기업 유치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23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기업 유치를 나선다.

이번 유럽 방문은 새만금호 내측 해상풍력 실증단지과 연계한 제조 기업 유치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사례 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스페인의 가메사와 안전관리·인증기업인 독일의 옴텍베이스 등을 방문해 투자 상담을 하고,

'풍력발전시설-기업-연구소'가 집적화된 사례를 조사해 새만금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일의 브레머하펜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한다.

한편, 이번 유럽 방문은 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